

백러시아민족과 우크라이나민족 루바하의 조형성

최수빈

인하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복식은 물질문화의 기본적인 요소로써 종교와 문화, 자연환경 및 민족 고유의 특징을 담고 있다. 백러시아민족과 우크라이나민족은 러시아민족과 더불어 동슬라브민족에 속한다. 동슬라브민족은 따뜻한 흑해 연안에서 혹독한 기후의 북 러시아와 시베리아지방까지 널리 분포되어 살아왔다. 늪지대와 숲지대가 많은 동 슬라브의 지리적 조건은 각각의 민족들을 격리시켰으며 복식의 형태분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강을 중심으로 한 상업의 발달로 동슬라브 이외의 타민족간의 문화접변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드네프르강과 흑해를 통해 동방문화를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백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루바하(rubaha, pybaxa)의 조형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루바하(rubaha, pybaxa)는 동슬라브민족을 비롯한 모든 슬라브민족 여성과 남성의 대표적인 튜닉형태의 전통의상이다. 백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은 동슬라브민족의 고대 루시(공국-Rus, Русь)발생지역이며, 서슬라브와 남슬라브의 경계지역이자, 전 슬라브민족 분포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백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루바하(rubaha, pybaxa)의 고찰은 모든 슬라브민족의 민족복식 연구를 위한 중요한 선행연구가 될 것이다. 백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전통적으로 루바하(rubaha, pybaxa) 위에 바지나 치마를 착용하였는데 고대 루시(Rus, Русь)시대 키예프 지역 유물 조각이나 그림에서도 루바하(rubaha, pybaxa)와 바지차림의 남성이 보여진다. 19세기 말 - 20세기 초 까지 지방에선 루바하(rubaha, pybaxa)를 외출복과 실내복으로 겸용하였다. 몇몇 지방에선 남녀모두 혼인 전까지 긴 루바하(rubaha, pybaxa) 하나만 착용하기도 하였다. 백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루바하(rubaha, pybaxa)를 사로까(soroka, soroka)라 불렀다. 백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로까(soroka, soroka)는 형태가 매우 다양하였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사로까(soroka, soroka)의 기본적인 패턴의 형태는 어깨 무에 주름을 잡은 튜닉 형태이다. 비교적 단순한 튜닉형의 사로까(soroka, soroka)는 남자의 평상복이나 여자의 속옷으로 입혀졌다. 사로까(soroka, soroka)는 일반적으로 한 장의 긴 천으로 앞, 뒷길을 만들고 길의 양 옆선에 각 한 장의 천을 연결하여 소매를 만들었으며 길과 소매사이에 무를 달고 어깨선을 절개한 후, 다른 천을 연결함으로 목둘레선을 연장하여 활동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백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로까(soroka, soroka)는 주름과 무를 충분히 이용한 풍부한 부피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목선과 어깨선, 진동선에 주름을 잡아서 다양한 실루엣을 만들었다. 루바하(rubaha, pybaxa)는 일반적으로 어깨와 소매의 연결방법과 커프스의 모양, 목둘레선과 루바하(rubaha, pybaxa) 윗부분의 모양, 칼라의 모양과 패턴의 방향(식서나 가로방향)에 의해 분류된다. 또한, 루바하(rubaha, pybaxa)의 패턴은 직조된 직물의 크기와 양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였다. 집에서 직조한 직물의 넓이는 37-38cm였으며 19세기 말에는 47-49cm로 넓어졌다. 혼례용 루바하(rubaha, pybaxa)는 집에서 짠 흰색의 면으로 앞, 뒷길에 중간 가로 이음이 없이 한 장의 천으로 재단하였다. 혼례용의 긴 루바하(rubaha, pybaxa)는 빨간색 실로 마름모나 줄무늬, 그밖의 여러 기하학적 형태의 모양들을 수놓거나, 직조하여 덧붙였다. 무늬는 옷 가장자리, 옷깃과 소매에 수평으로 배치하였다.